

원희룡 장관, “악질적 전세사기, 반드시 발본색원 할 것”

- 22일 피해 임차인 대상 설명회에서 정부의 전세사기 근절 의지 강조 -

-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22일(목) 오후 2시 전국경제인연합회관 회의장에서 열린 속칭 ‘빌라왕’ 피해 임차인 대상 설명회에 참석하여 임차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부 지원방안을 설명했다.
 - 이번 설명회는 주택도시보증공사(이하 “HUG”)의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을 대상으로, 피해 임차인 지원 현황, 보증금 반환 청구 절차, 대한법률구조공단(이하 “공단”)의 법률 구조 제도 등을 직접 설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- 원 장관은 “전세사기로 인해 서민 임차인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막지 못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매우 미안한 마음”이라면서,
 - “임차인들을 눈물 흘리게 하는 악질적인 전세사기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임하겠습니다”고 밝히고,
 - 또한 “임대인 뿐 아니라, 보증금 반환능력이 없는 임대인을 앞세워 전세사기에 가담한 건축주, 공인중개사 등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하도록 하겠다”고 강조했다.
- 아울러, “이미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보증금을 돌려받는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고, 관련 절차가 최소화 되도록 HUG,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피해자들 가까이서 지원하겠습니다”면서,
 - “앞으로 억울한 피해사례가 최소화 되도록,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,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으니 정부를 믿고 지켜봐달라”고 당부했다.

2022. 12. 22.

국토교통부 대변인